

제 121 호

사순 제 6 주일

1975. 3. 23.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감 론 □

“나는 책임이 없소”



범석규 신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기쁨에 넘치는 환호성이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성소주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성화를 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총독 빌라도의 겁먹은 소리를 듣는다 - 당신들이 말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소”라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 예수께서 무죄하시다는 것을 잘 아는 빌라도는 이 사건이 오직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소행임을 알아차렸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의 꿈자리 이야기는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건에서 손을 떼게 했다. 하지만, 대제관들과 원로들의 총동질을 받은 군중들의 합성은 빌라도를 당황시켰다. 끝내 빌라도는 그때 풍습대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므로써 그 사건과 무관(無關)함을 표시하고 총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형판결을 받으셨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몇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비겁하고 무능한 총독 빌라도의 교훈이고, 그 둘째는 전성으로 뛰어다니며 환호성과 저주의 소리를 아무렇게나 뱉어내는 군중의 교훈이다.

자기의 안일과 무사함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우리는 자주 본다.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은 농사철에 비판 오지않아도 자신의 부덕(不德) 함이라고 겸손스럽게 가슴을 쳤다. 하지만 요사이 많은 지도자들은 영광은 자기의 것으로 돌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실패의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종종 본다. 이는 지도자의 인격이나 소양은 뭐로 돌리더라도, 자기가 이끌고 있는 집단의 예하 사람에게 주는 사기저하도 커서 일의 능률조차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여기에서는 “좋습니다” 저기에 가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 사회의 특소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옳은 판단도 없고, 지조도 없는 소치이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오늘, 군중들의 합성과 빌라도의 겁먹은 소리를 외면하겠는가? 그러면서도 부활의 알렐루야를 기쁜 마음으로 외치겠는가?

(전주교구 사목국장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빠스카 축일 셋새 전, 주님이 예루살렘 성도에 오실 제, 아이들이 주님을 마중나가며 빨마 가지들 손에 들고, 크게 외치는 소리: 높은 데에 호산나, 큰 자비를 베푸시려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이 들시려 하시나니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높은데에 호산나, 큰 자비를 베푸시려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50: 4-7)

육살을 퍼붓는 것이 싫어서 나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니, 나 창피 아니 당할 줄 아노라,

□**창세기** ①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마다 나를 보며 업신여기고 머리를 끄떡대며 비웃거리나이다. 주께 의탁했으니 구하시렸다. 그를 사랑하시니, 배내 주시렸다. ②

□**제 2독서** (골립비 2: 6-11 성서 P 450)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기에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

□**복음 전 노래**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죽기까지 더우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도다.

□**복음** (마태오 22: 11-54 성서 P 69)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수난기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지난 사순 6주간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나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남은 1주일의 성주간을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수난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②주여 우리의 기도를...

2. 주여, 통회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특히 당신의 인자하신 눈을 냉담자들에게 비추사 그들에게 즐겁고 기쁨에 찬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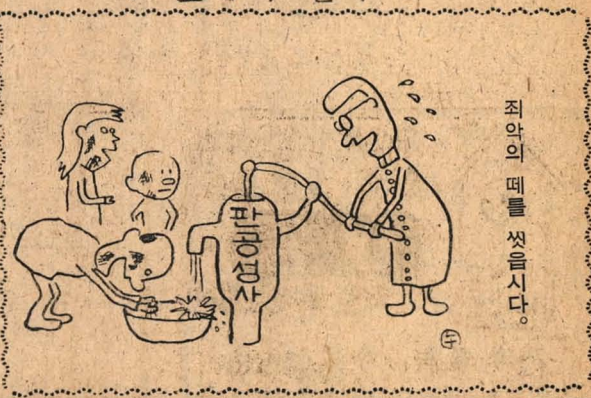
3.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여, 부활의 희망을 품고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당신의 끝없는 영광을 하루속히 맛보게 하소서 ④

+전능하신 주여 당신 백성들의 기도를 귀여겨 들으시어 청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성 주간을 거룩히 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주 그리스도의... ⑤ 아멘

(3) 성찬의 전례 □ 불현 □ 섬찬식

□**영성체송**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실 수 밖에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 순정이 산책 *



죄악의 때를 씻읍시다.



기쁨의 순간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한 기 호 (요안)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무미 건조하고 베마르고 답답한 때가 허다하다. 신앙 생활의 기쁨이 항상 우리안에 있다면 것처럼 기쁨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것처럼 흥겨운 기쁨에 쉽게 배후되어 그생활에 몰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벌이 꿀을 찾아 흥겹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달콤한 생활은 아닌것 같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달콤한 생활을 찾아 구하여 그안에 안주하는 생활이 아니라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하는 십자가의 생활이다.

스승의 변모에 압도되어 베드로가 회외의 환성을 지르던 순간도 그리 길지는 못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본 영광스런 변모의 황홀한 순간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아쉬움으로 깨어났지만 그는 그 장면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다.

예수와 함께 고달픈 생활을 영위 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순간을 맞본 때문이라. 신앙생활은 결코 고달프고 피로운 세상에서 격리되어 아늑하고 안이한 생활로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성요한의 일상생활속에서의 체험과도 같이 "어둔밤"을 거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투쟁과 번민의 생활이다.

하나 우린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기쁨의 순간을 체험해야 된다

따분하고 피로운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택해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 주님을 찾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황량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거동나 미사중예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 뵙는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 없다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 생활은 더없이 지리멸렬 할 것이다.

칼 라너(Karl Rahner)의 말대로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도와 주는일, 누명을 쓰게 되었을때 구태어 해명하지 않는 일, 실증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하고 임무에 충실하며 형제를 돕는 일 이러한 간단하고 단순한 일상생활에서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의 체험을 가능케 해준다.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의 식탁에 모여 있을때 얻게되는 즐거움을 더욱 심화시켜 준다.

베드로의 스승의 변모 사건에서 맞본 기쁨은 주님을 찾는 우리 신앙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신심행위를 통해 주님을 만나 얻게되는 값진 보물인 것이다.

그것은 신앙을 생기있게 해 주는 활력소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어 만나는 기쁨의 순간을 영속해 나가는 길 일 것이다.

(광주대건 신학대학 연구과 1년)



일 하고 먹자

한 정 현

"빈 손으로 왔다 빈 손으로 간다(空手來 空手去)" 이와 같은 말은 성서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디모테오전서6:7) 이 말의 뜻하는 바는 소극적인 태도로 안이하고 게으른 인생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도리어, 삶을 알차게 영위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사도 바오로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베살로니카후서 3:10)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일이나 해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존재다」고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사람이 만일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싸움은 사라지리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재의 수요일」에 사제가 신자들의 머리위에 재를 뿌리며 「사람아, 너는 흠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서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울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디모테오전서 6:9-10), 「아무리 부요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어버리고 맙니다.」(야고보 1:10-11)

현대에 사는 인간들은 과중한 일(사업)때문에 오히려 삶을 피로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피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시간 인들 늘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반성하며 뜻깊은 대축일 부활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동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교형 여러분의 집 *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녹음기 등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화 5893
전주극장 입구 명보제과 옆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 (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6544



새 싹

이 병 희 (스테파노)

꼭마르게 기다렸던 「새싹」 월보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 4차 교리교사 연수회 (74. 8 송광사)를 계기로 아동 교리교육에 있어 「어떻게 하면 아동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천주님나라의 신비를 이해시키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완전한 교리교사가 될 것인가」의 그 방법 모색중에 교리교사의 교육을 연수회로써 그치지 말고 연수교육의 연장으로써 매달 월보를 배당하여 공소 교리교사의 불충분한 교재, 자료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또한 좀더 나은 교리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모든 교사들의 의견에 월보를 간행기로 하였습니다. 모두가 부품의 기대속에서 기다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 등으로 안타까움속에서 발돋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주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어린 아이들을 아니버리시라는 회망속에 노력과 주님의 뜻을 그리던 차 다소 늦은감 없지 않으나 이렇게 새싹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숙한 듯한 이 새싹이 교사 선생님들께 얼마만한 도움이 될는지 -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교사님들의 협력 없이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모든 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여 끊임없이 성신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성신의 작용안에서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며 봉사로 일치시키므로써 언제나 성신의 작용하심으로 우리 새싹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싹(월보)의 전면을 보면 그림 등으로써 실제강론, 교리교수법, 아동성가 및 레크레이션 토막상식, 교사노트 사용법 등으로써 더욱 앞으로 교사님들의 도구로써 충분한 협력자가 되도록 앞으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사님들의 협력을 바랍니다. 여러 교사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지실로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일은 매월 1일. 원고마감일은 매월 20일 (단 3월은 3월30일까지 마감)
교사논단으로는 시, 수필, 전의문, 본당내의 아름다운 미담 및 아동작품.
본당 소식과 지구 연합회 소식, 회원 동정란도 마련하였어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아쉬운점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충분치 못하기에 1부당 50원 (우송료 포함)씩 부담 되겠습니다. 계속 구독하실 선생님께서는 매월 20일까지 부수, 구독예약 개월, 주소, 성명을 기입하여 편지실로 보내주시길 바라오며 아울러 많은 교사님들의 구독신청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돌아나는 「새싹」을 위하여 많은 교사님들의 충고와 투고를 바라오며 이제껏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 종길 신부님 이하 성원하여 주신 분 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 선생님들에게 음, 양으로 내조자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편지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 센타 새싹 편집실)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장)

요십이 (87) 김병오



□신간안내□

- 십자가의 길 (토성선공) 170원
- 갈매기의 집 580원

○ 원 고 모 집 ○

200자 원고지 5매 정도.

○ 광 고 모 집 ○

〈윤정이〉 편집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껏 봉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전화 ⑤ 5013
김 원 준(야교버)

* 축 결 혼 *

千 建씨의 장녀 천 정 우(소피아)양
일시 : 1975년 3월 23일 (일요일) 정오 12시
장소 : 전주 중앙 천 주 교 회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후백사진.카메라수리
송 흥 섭(토마스)
전화 ⑤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비거리 중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계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⑤4577)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 원 상(돈보스코)
전주 동부시장통 (전화 ⑤913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오지리 장학생 선발 요강

오지리 부인회에서 지급하는 장학생 약간명을 선발코자 하오니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으로서 영세를 받은자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부님 추천서, 사진 3매
- 신청 : 1975. 3. 31까지 가톨릭 센터 사무협의회.
- 선발발표 : 차후 신부님께 연락 드림

2. 전주 지구 중·고등 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2시 전동사제관 2'-1호실에서 각 본당 구 회장단 및 신 회장 부회장 참석을 바랍니다,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박종상, 사도 회장 김영진

1. 성 주간 행사 안내

- ◎(목요일)제 1부: 성유 축성, 제 2부: 오전 10시 주교님 집전 제 3부: 주의 만찬 미사 오후 8시(주교님 집전) 제 4부: 성체 조배 금요일 오후 8시까지
- ◎(금요일)제 1부: 오후 8시 예수수난예절, 말씀의 전례 제 2부: 영성체, 십자가의 길 3시

◎ 예수 부활 전야제<토요일> 제 1부: 주교님 미사집전(초지참) 오후 8시. 제 2부: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성체예절. 제 3부: 성체 서원 갱신, 성찬의 전례

2. 부활 대 축일 미사: 오전 10시 주교님 집전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 1. 중·고등학생 신입생 환영회: 공식 미사 후
- 2.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 월례회: 다음 주일
- 3. 판공 성사 누락자 성사 일정: (오후 3-6시)

<25일>남노, 중노 1가 <26일>중노2가인우, 우아, 신교리

4. 성 주간 예절 안내: (목, 금, 토 저녁 7시30분)

※성 토요일 부활 전야제 초지참, 성체 서원식. 성세자는 오후 6시까지 대부, 모 같이 참석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중노 1가 김보나: 1천원. 중노2가 오수난나: 1천원 기독교 신자 이름없이: 5,000원 주계: 7,000원 누계: 1,953,517원

◎ 신축 성미 주계 2말. 누계 250.6되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 1. 섬세식: <에비자> 토요일미사중 <아동>: 부활미사중
- 2. 성 주간 행사: 성, 목, 금, 토요일 저녁 8시
- 3. 애령회 임원 선출: <위원장> 김동선 <부위원장> 정복수, <총무> 박요곤 <특별위원> 김용식 <감사> 이귀연 <위원> 엄기서, 문홍주, 김동년

부녀위원: 임옥선, 최부남, 김익수, 윤누시아, 홍정애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부활 영세식: 토요일 저녁 미사 후
- 2. 성 주간 예절에 모두 다 참여 합시다.
- 3. 교무금 납부 요망
- ◎ 성미 3말 누계 369.5되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판공 일정: <24일> 마우리 <24, 25일> 미사 없음
- 2. 성 주간 예절 안내: <목>오전에 중앙에서 성유 축성 미사 밤 8시에 본당에서 주의 만찬 미사 있음 <금> 단식과, 금육. 오후 2시 30분 예절 있음 <토> 부활전야 미사 8시<초지참>
- 3. 판공 누락자는 26일 부터 수시로 와서 보시길!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현재

- 1. 성 주간 예절 행사 안내
 - ◎성체 건립<목> 저녁 8시 ◎예수 수난<금> 저녁 8시
 - ◎예수 부활 전야 <토> 아동미사(8시) 영세 예식(9시) 성인미사 <10시> ◎예수 부활 축일 미사: 10시, 오후 2시 <아동미사>, 저녁 8시
- 2. 61주년 추진 삼임위원회 제1차 회합<지난 월요일밤>
 - ①기념일 결정: 7. 5<토> 김대건 신부 축일 ②기념성미 운동: 부녀부 ③성당 회원정리: 회장단 ④성당기념 우편 염서: 재정부 ⑤성당 재단 미화: 성가정회
- 3. 성우회<가칭> 총회: 공식 미사 후, 사제관 2층

금주의 숲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대건 신용협동 조합 직원 고아베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길부신태인유	창제안일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3,171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성주간 행사에 모두 임합시다	27,850원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5,045원			부활절 영세식	
제 2 지구	대운월명동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5,435원	제 4 지구	중안동	성주간 행사에 모두 참여합시다	54,702원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3,000원			중고등생 신입생 환영회	
제 3 지구	고금여	사도회 월례회	14,510원	제 5 지구	남주장진순	부활 성세식	3,350원
		사도회 월례회	3,000원			부활 축일 공소 배구 대회	
제 1 지구	고길부신태인유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5,045원	제 2 지구	대운월명동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8,715원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5,435원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제 2 지구	대운월명동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3,000원	제 3 지구	고금여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2,055원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3,000원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제 3 지구	고금여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4,510원	제 4 지구	대운월명동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52,722원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3,000원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제 4 지구	대운월명동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4,510원	제 5 지구	남주장진순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4,196원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3,000원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제 5 지구	남주장진순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4,510원	제 6 지구	대운월명동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18,715원
		성삼일예절에 모두 참여합시다	3,000원			성주간 예절에 많은 참여하시길	